

메르스 악몽 재현되나... 유통가 줄줄이 휴·폐업

〈매출 10% 감소〉

코로나 공포에 소비자 발걸음 급감
백·면세점·쇼핑몰·마트 '초비상'
연휴 후 첫 주말인데 매출 30% 뚝

확진자 추가엔 장기화 가능성 야기
주 고객이 비판광객인 면세점 타격

면세점을 비롯해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들이 줄줄이 영업중단에 나서면서 매출이 급락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지난 주말(1~2일) 매출은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첫 주말(2019년 2월 9~10일)과 비교해 11% 감소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 본점은 매출이 30% 떨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주말 매출이 12.6% 감소했으며 명동 본점 매출은 23.5% 줄었다. 현대백화점도 전체 매출은 8.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영업점 휴업에 들



3일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의 한산한 모습. /손진영 기자 son@

아가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2일 오후 6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표에 따라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중국인)가 지난 23일 제주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즉시 내부 매뉴얼에 따라 고객의 입점을 통제하고, 입점 고객들의 퇴점을 진행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

지와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3일부터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매장 폐쇄 이후 추가 방역작업을 진행했으며, 보건당국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후 재개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 서울점도 12번 확진자가 20일과 27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

라 2일 오전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마트 업계도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 이마트 부천점은 부부인 12번, 14번 확진자가 지난달 30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3시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31일에는 8번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점의 영업도 중단했다.

해당 매장들은 모두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방문을 통보받고 방역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

AK플라자 수원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5번째 확진자의 배우자가 AK플라자 수원점에서 근무한 협력사원이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2월3일 임시휴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AK플라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즉시 사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AK플라자 직원 및 점포 근무자와 가족, 동거인 전원에게 대해 중화권 방문 현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5번째 확진자(당시 능동 감시자)의 배우자인 협력사원에 대해 확인했다. 이 협력사원에 대해 확인 당일인 1월27일부터 휴무 및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후 29일 수원점 전 구역을 1차적으로 방역조치했으며 3일 추가 방역을 결정했다.

AK플라자 측은 "협력사원의 확진 판정 여부 및 상황을 보며 휴점기간은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보다 확진자가 3명 추가되면서 국내 환자가 총 1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주말,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대형마트 곳곳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 신종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평소보다 고객의 발걸음이 급감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메르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유통업체 매출이 급락했던 2015년 6월처럼 매출 하락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11.9% 감소했고 대형마트 매출은 10.2%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 업계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 중 하나인 면세점에서 확진자의 방문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 업계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로나, 수출·내수 악영향... 추경은 아직 검토 안해”

홍남기 부총리 장관회의 주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 韓도 영향
조기종식 안되면 경기하방압력 작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라며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며 “이번 사태로 중국 및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도 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소상공인 상점들을 방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하겠단”고 말했다.

◆수출·내수 파급점검

홍 부총리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이 지표상 나타나는 것은 방한 관광객의 축소”라면서 “경제주체 심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은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됐고, 글로벌 경제와도 연결돼 있어 수출과 내수 파급 영향을 양쪽 다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국내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주 경계심을 갖고 있다”면서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달 별도의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모

니터링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 형태의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음식·숙박업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확산과 진정 속도에 달려 있다”면서 “단기에 종식될지, 몇개월에 걸쳐 전개될지, 더 빠른 확산 속도로 갈지 시나리오별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사스 때는 국내 사망자가 없었지만, 메르스 때는 38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점도 차이점으로 꼽았다.

◆현재로서 추경 검토한바 없어

홍 부총리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1월 말 추경을 할 건지 물어봤는데, 1월부터 연간 예산 인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도 똑같이 물어보고 나중에 혹시나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되면 또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는데, 1월에 확보된 예산과 방역 예산,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접들이 있어서 지금(추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예산 지원과 관련, “올해 각 부처가 방역 예산으로 확보한 208억 원을 전부 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나, 아마도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방역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목적 예비비 2조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편성해 합동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에 공포할 예정으로 만약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입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한용수 기자 hys@

국방부 신종 코로나 관련 장병 800명 예방 차원 격리

국방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군내 감염과 관련해 현재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는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800여 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은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한 장병들까지 현황을 파악해 자가 또는 부대에서 격리하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해당 국가(중국·홍콩·마카오)를 방문한 인원이 있거나 접촉한 경우에도 해당 장병들을 격리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격리된 800여 명 중 장병 본인이 해당 국가를 방문해 격리된 인원은 170여 명이고, 가족 등 제3자와 접촉한 장병은 630여 명이다. 이중 간부는 300여 명, 병은 490여 명이다. 격리된 인원 중 350여 명은 자택 격리, 450여 명은 부대 격리 된 상황으로,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부대에 장병출타제한 지시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인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 최 대변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중에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인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공함과 항만 검역소 21개소에 의료인력과 일반 병력 200여 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및 검역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정 장관은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면서 개인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